

# Daily Auto Check

2021.1.21(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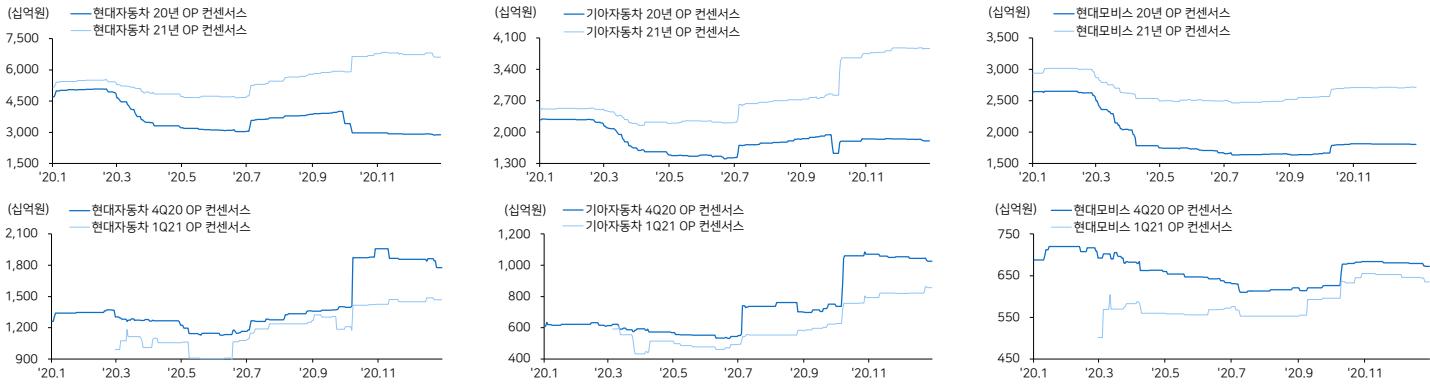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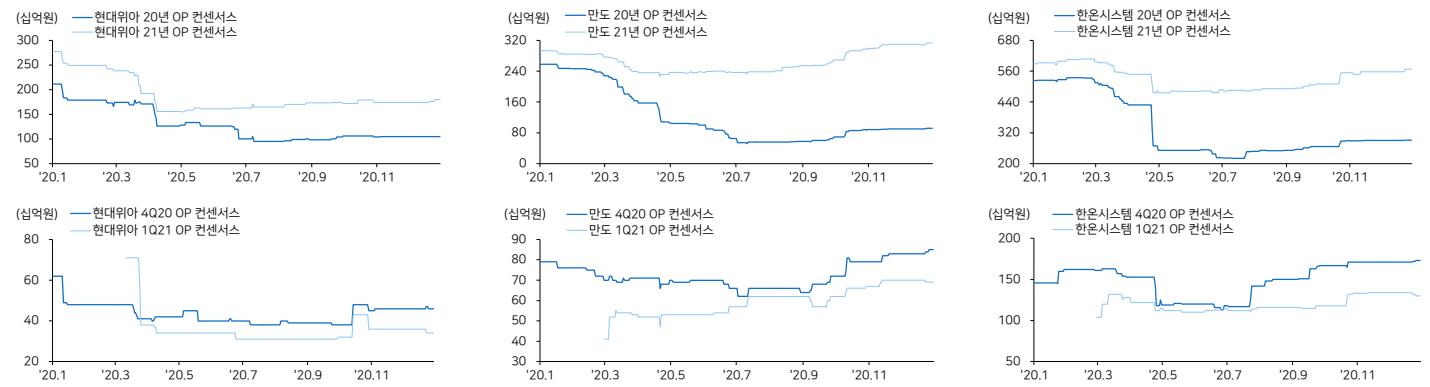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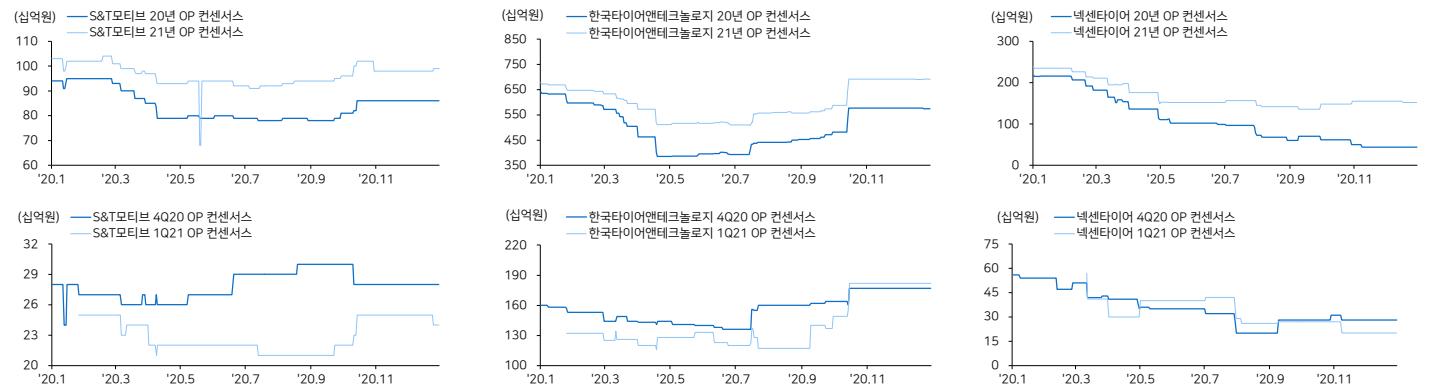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수소차 '넥쏘' 기술로 전력 만든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 울산에서 본격 가동됨. 현대차는 20일 한국동서발전, 덕양 등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준공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 <https://bit.ly/3620qjm>

## '기대반 우려반'... 애플과 고민 길어지는 현대차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현대차그룹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음. 글로벌 모빌리티 선두업체로 부상한 현대차그룹에 기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횡령금을 낳는 거위'까지는 아니라는 반응. 현대차그룹도 애플의 러브콜에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 <https://bit.ly/3uOOnW>

## 중국서 테슬라 전기차 견제 나선 폭스바겐...무기는 '가격' (한국경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3000만원대 전기 SUV를 내놓으며 테슬라 견제에 나선 폭스바겐은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과 함께 생산하는 전기 SUV ID.4 코로스 가격을 19만9900위안(약 3400만원)부터로 책정. <https://bit.ly/2MbG4Md>

## 미국 포드·일본 마쓰다, '다카타 에어백' 장착 300만대 리콜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와 일본 마쓰다가 다카타사(社) 에어백이 칭착된 차량 총 300만대를 리콜하게 됨.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리콜을 피하기 위한 포드와 마쓰다의 요청을 기각하고 리콜을 확정. <https://bit.ly/3ixRbLz>

## "AI로 차량 결함 찾는다" 현대차,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 (뉴스원)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차 결함 검사 시스템을 개발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현대차는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 '유브리아이(UVeye)'가 진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https://bit.ly/2Y0lvdU>

##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친환경 차 80만대 돌파 (YTN)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0만대를 돌파해 국민 2.13명마다 차량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436만5천여 대로 1년 전보다 2.9%, 69만대 증가했다고 밝힘. <https://bit.ly/2KvPCK0>

## "지프부터 마세라티까지 2025년부터 신차 모두 전기차로" (한국경제)

세계 4위(판매대수 기준)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2025년부터 전기구동 차량만 출시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둘러 미래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https://bit.ly/2Nre3RP>

##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3조원 투자 유치 (오토팋ain)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26억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이번 투자는 T로웨프라이스, 피델리티, 아마존, 코트 마니지먼트 등의 기관 및 신규투자자가 참여. 기업가치는 270억달러(약 29조 6,7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https://bit.ly/3o6EDfz>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